'책의 힘'으로 새물결 이룬다

'새물결' 출판사의 조형준 기획실장

새물결출판사(사장 안광묵)는 '출판'이 사람의 능력을 참으로 아름답게 발휘하게 하는 분야임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대중매체가 주류적 사고, 중심적 사고를 전파하는 기제라면 책은 다르게 생각하기, 주변 돌아보기를 시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전자매체가 융성해진다 하더라도 종이책의 수명이 다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형준 기획실장(33)은 '책의 힘'을 확신한다. 그리고 새물결의 많지 않은 식구들도 모두 이 '신앙'을 함께한다.

인문적 교양 키우는 데 주력

"특정한 이념이나 노선에 갇혀 있는 출판은 지양합니다.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89년 출발당시만 해도 급진적 변혁이론의 보급기지를 자처했던 새물결은 이제 더 넓은 의미의 사회 진보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 사회의 인문학적 교양과 수준을 높인다면 어떤 책이라도 출판할 예정이다.

물론 상업적 이익을 앞세운 출판은 절대 배제한다. 책을 많이 팔기 위한 광고도 하지 않는다. 한발 물러서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야말로 새물결이 출판을 통해 하고자 하는 바다.

그람시, 에코, 부르디외, 푸코 등 지적 거장들의 저작물 14종을 가지고 있는 '문화신서'와 20세기의 획기적 성과로 독자로 하여금 다소 무겁고 오래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책들을 담아낼 '21세기 총서'의 목록들은 이 출판사가 지향하는 바를 잘 말해준다. 얼마전 펴낸 《사진으로 보는 영화의 역사》나 세계환경발전위원회의 《우리 공동의 미래》, 앤소니 기든스의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김상태의 《섹스라는 기호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 출판사의 관심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지금까지 펴낸 30여종의 책 가운데 90%가 넘는 책이 번역서라는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 한권 한권의 책이 지닌 무게나 의미가 결코 덜하거나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알찬 목록을 지닐 수 있게 텍스트를 선정한 기획력에 관심이 간다.

새물결의 남다른 기획력은 독특한 경영방식에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회과학 출판사가 된서리를 맞았던 90년대 초에 존폐의 위기에까지 치달았던 새물결은 직원들이 월급을 반납하면서 살려냈다. 따라서 직원들의 출판사에 대한 애정도 예사로운 게 아니다. 새물결에 간여하는 사람은 상근직원 4명에 비상근 기획위원 5명을 포함해 9명이다. 이밖에도 알게 모르게 새물결에 힘을 보태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기획력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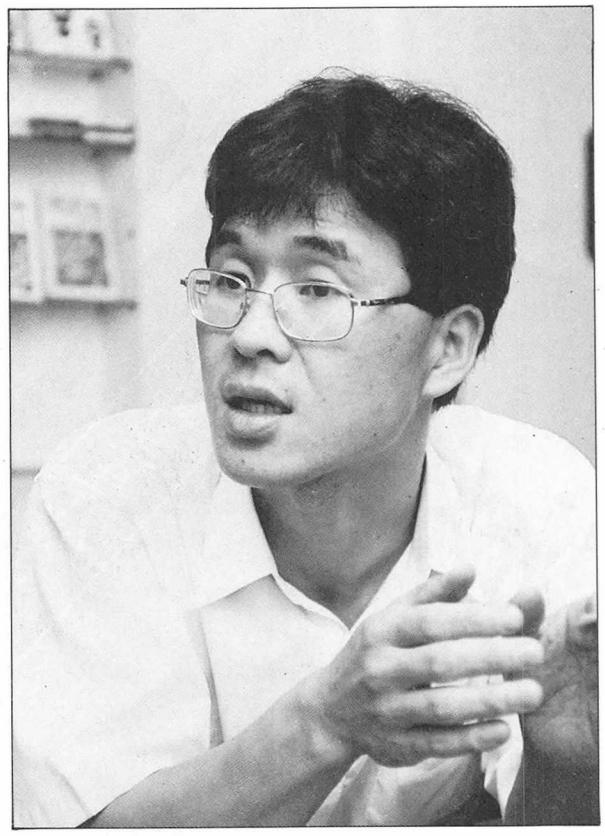
사장은 부리는 사람이고 사원은 부림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자본주의적 경영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 사장, 영업실장, 편집실장, 편집부원식의 직책은 새물결에서는 직위의 개념이 아니라 역할분담의 개념이다. 기획을 전담한 기획위원들의 안목이나 텍스트 평가능력도 일정수준을 넘는다는 게 출판사의 자랑이고, 1인 1개국어 식의 편집진의 외국어 능력도 번역작업을 꼼꼼하게 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된다.

프랑스 아날학파의 탁월한 지성인 필립 아리아스의 책 몇권을 저작권 경쟁이 치열한 요즈음에 새물결이 독점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비싼 저작권료'가 아니라 도서목록과 번역에 임하는 자세 덕분이었다는 후문이다. 13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묘비명과 문학서 등 각종 자료에 나타난 죽음에 관한 글귀들을 분석한 《죽음앞에 선 인간》을 소개하게 되어 조형준씨는 벅차기까지 하다. 이밖에도 《사생활의 역사》《여성의 역사》 등 흥미롭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담은 묵직한 책들을 번역, 소개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새물결은 '누벨 바그(Nouvelle Vague)' 입니다. 누벨 바그가 프랑스 문화사에 큰 흐름을 형성했듯이 출판을 통해서 우리 시대 문화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들이 기도문처럼 외우는 구호는 이것이다. "장강(長江)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밀어낸다."

——박남정 기자

"말 그대로 새물결은 '누벨 바그'입니다. 누벨 바그가 큰 흐름을 형성했듯이 출판을 통해서 우리 시대 문화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조형준 기획실장.

"베스트셀러 작가 조정래님 또는 이문열님이
베스트셀러가 될 원고를 써 주신다고 해도 정중히 사양합니다."

저자 / 신달자, 임경숙, 채시라
최청자, 추미애, 하선정

나이나, 신분, 직업, 그리고 국적에 관계없이
"여성의 원고만"을 환영합니다.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도서출판 **세계의 여성들**

"여성전용출판사"로 탄생했습니다.

신국판/430쪽/8,500원

도서출판 세계의여성들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310-6(광흥빌딩 3층) 전화 2650-124, 팩스 278-6243